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간일 2023년 05월 22일
감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행인 김종덕 원장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3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4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18,429달러/일 기록, 중국 철광석 항만 재고량 증가 vs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동결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1p 하락한 972.4p를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15.1p 상승한 47.5 기록, 미국의 전략비축유 보충 계획으로 인한 유조선 물동량 증가 기대감 유입

황수진 해운시장연구 센터장 / zin@kmi.re.kr | 051-797-4635
윤재웅 부연구위원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해운금융연구 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방글라데시, 홍콩협약 비준 전망

- ▶ IMO의 선박 재활용 협약인 '홍콩협약'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비준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BIMCO는 방글라데시의 홍콩협약 비준이 향후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홍콩협약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해 2009년에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비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상태임
 - 세계 최대의 선박 해체국가인 방글라데시와 세계 선박 등록국인 마셜 제도가 동 협약에 가입할 경우 비준 발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폐선 수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홍콩협약의 발효가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 BIMCO의 예상에 따르면 2023~2032년 동안 15,000척, 약 6억 톤(DWT)의 선박이 폐선되며 이는 이전 10년 폐선량의 2배에 달함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5108/Bangladesh-to-ratify-Hong-Kong-Convention-on-ship-recycling-amid-r-eoord-scrapping-forecast>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MSC, 5월말 선복량 500만 TEU 돌파 예정

- ▶ 5월 16일 기준 MSC의 선복량은 약 495만 TEU(753척)로서 이달 말 2만 4천 TEU급 선박 2척이 인도 예정되어 있어 500만 TEU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상위 10위 이내의 다른 선사들과 달리 MSC는 단독 선복량으로 얼라이언스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주요 항로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 2025년 1월 2M 동맹의 계약 종료 시점에 MSC가 독자 노선 운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알파라 이너는 MSC가 여러 소규모 선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
- ▶ 알파라이너 자료에 따르면 MSC의 발주 잔량 또한 기존 선대의 약 33%에 달하는 160만 TEU(127척)로서 향후 대량의 인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중반에는 선복량이 60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M 얼라이언스 파트너인 Maersk의 선복량은 세계 2위로서 410만 TEU를 보유하고 있지만 발주 잔량은 37만 TEU에 불과하여 MSC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5106/MS-C-fleet-to-breach-symbolic-5m-teu-mark>

김병주 전문연구위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흑해곡물수출협정 60일 연장

- ▶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장관인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는 흑해곡물수출협정이 만료를 하루를 앞두고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고 밝힘
 -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몇몇 남아 있는 쟁점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유엔 대표 지속해서 논의함으로써 본 수출 협정을 개선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암모니아를 포함한 식량 및 비료 수출에 관한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자국의 곡물 및 비료 수출에 관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 본 협정이 파기될 수 있으며, 아직 이러한 요구에 관한 가시적 진전이 없다고 밝힘
 - 러시아의 요구 사항에는 예비 부품 조달, 국영 농업 은행(Rosselkhozbank)을 스위프트(SWIFT) 결제망 시스템에 재연결, 물류 및 보험 관련 제재 해제, 톨리아티(Togliatti)-오데사(Odessa)간 암모니아 파이프라인 재개, 특정 러시아 회사 자산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됨
 -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사무총장인 레베카 그린스팬(Rebeca Grynspan)은 러시아와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음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5117/Grain-deal-extended-according-to-Ukrainian-official> & <http://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5143/Russian-foreign-ministry-says-grain-deal-will-be-terminated-if-demands-not-met>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호주, 중국의 4월 석탄량 수출 급증에도 향후 수출 주춤

- ▶ 저렴한 호주산 고품질 석탄에 관한 수요로 인해 지난 4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2020년 9월 수준으로 회복됨
 -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372만 톤의 발전용 석탄과 17만 1,067톤의 원료탄을 수입하여 약 389만 톤의 호주산 석탄을 수입함. 이는 3월 수입량 대비 89.6% 증가한 수치로, 2020년 9월의 수입량인 447만 톤과 비슷한 수준임
 - 호주산 석탄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4월의 인도네시아산과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은 각각 2,100만 톤과 810만 톤으로 전월 대비 4.5%와 8.4% 감소함
 - 다만 4월 중국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1.7%와 107.6% 증가함. 4월 몽골산 석탄 수입량은 543만 톤으로 3월 463만 톤 대비 증가함
- ▶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이후 고품질 석탄에 관한 강한 니즈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은 석탄 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호주 광산업체들과 석탄 수입 계약 체결을 꺼리고 있음.
 - 5,500kcal/kg인 호주산 석탄 가격의 지난 2월 가격은 127달러였으나, 5월 셋째 주 FOB을 기준으로 117달러로 하락함. 중국산 석탄은 호주산 석탄 대비 톤당 36위안이 더 저렴함
 - 중국석탄운송유통협회(China Coal Transport and Distribution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석탄에 관한 높은 비축량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와 호주산 석탄에 관한 자국 업체들의 수요가 둔화함

자료: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economy-trade-coal/chinas-april-australian-coal-arrivals-jump-but-import-profit-declines-idUKL4N37G145>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IEA, “G7 러시아 유가 상한제 강화, 석유공급 영향 미치지 못할 것”

- ▶ 지난 21일, IEA는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의 우회 활동을 차단하려는 조치가 원유, 석유제품 공급 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 G7은 20일 일본에서 개최된 연례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파급효과를 피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원유 상한제를 회피하고 있는 우회 행위에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발표함
 - G7과 EU, 호주는 유조선을 통해 운송되는 러시아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의 석유제품에도 가격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수익을 박탈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은 유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원유가 계속 공급되면서 시장에 공급부족 현상이 촉발되지 않는 동시에 러시아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 비를 총장은 러시아 유가 상한제 강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의 중요한 변화의 경우 IEA 분석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나, 분석 결과를 변경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함
 - 또한 G7은 공동성명에서 세계 각국이 러시아 에너지와 결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유시장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잠정적 해결 방안으로 천연가스 투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자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oil-supply-wont-be-affected-by-stricter-price-cap-enforcement-idea-2023-05-21/>

류희영 전문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러시아, 4월 원유 수출량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치 기록

- ▶ IEA의 월간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의 올해 4월 원유 수출량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EU의 연이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대폭 증대시킨 영향으로 분석됨
 -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4월 수출은 평균 830만b/d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수치는 2020년 770만b/d, 2021년 750만b/d를 큰 폭으로 넘어서는 수치임
- ▶ IEA는 "현재 러시아가 자국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처를 찾는 데 있어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러시아가 유조선을 통해 운송한 원유의 80%가량이 중국과 인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가 4월 산적한 총 520만 배럴의 원유 중 중국이 약 210만 배럴, 인도가 약 200만 배럴을 수입함
 - 다만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수익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유가 하락 추세와 G7의 주도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며 WTI, 브렌트유 대비 싼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임

자료: <https://www.ft.com/content/525f042c-d35d-4dac-aaed-c5fbf0d6bbd2>

류희영 전문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¹⁾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5월 3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6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8,429	▼ -2,637	-12.5 %	18,403 ▼ -2,577 -12.3 %
파나마선 5TC (달러/일)	11,515	▼ -1,588	-12.1 %	12,720 ▼ -1,823 -12.5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1,969	▼ -210	-1.7 %	12,372 ▼ -1,141 -8.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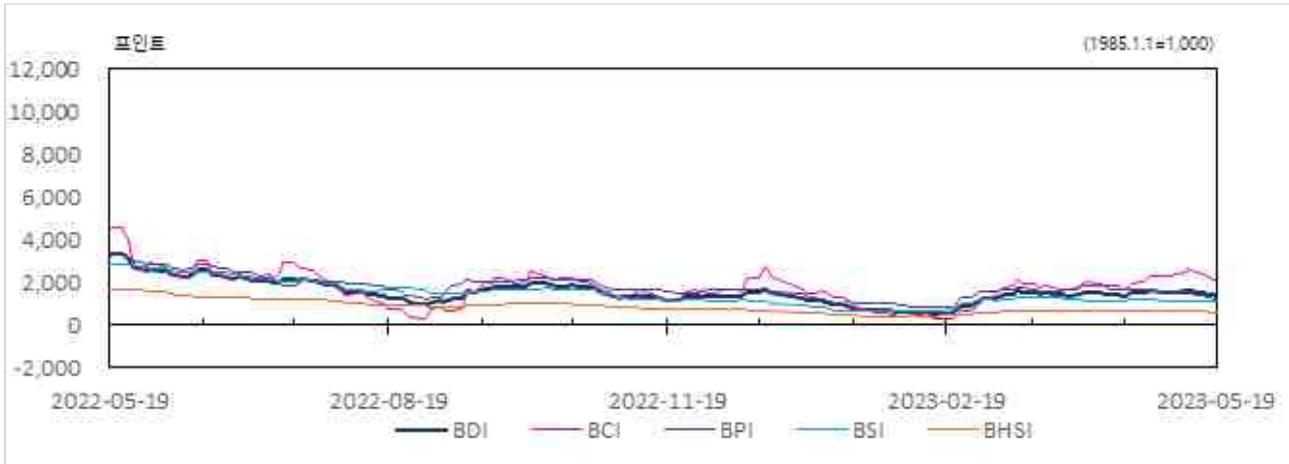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1) 5월 8일 데이터 마감시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5월 3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¹⁾									
운임지수	BDI	1,442	▼ -159	530	1,640	1,170	965	3,369	1,934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8,429	▼-2,637	2,246	21,814	11,848	2,505	38,169	16,177
	파나막스(5TC)	11,515	▼-1,588	7,277	16,669	12,276	10,956	30,746	20,736
	수프라막스(10TC)	11,969	▼ -210	6,874	14,703	10,928	11,685	33,366	22,152
	핸디(7TC)	11,139	▼ -311	7,763	12,703	10,317	11,941	32,166	21,337
1년 용선료	케이프	17,250	▼-1,000	13,750	19,750	16,481	10,125	23,000	16,591
	파나막스	16,000	▼ -75	11,200	14,125	12,823	9,625	16,125	12,537
	수프라막스	13,688	▼ -63	9,500	10,625	10,256	8,250	12,500	10,356
	핸디	10,500	- -	8,063	8,813	8,497	7,313	9,250	8,435

건화물선 시장(FFA)

		6월물		3분기물		2023년물		2024년물	
		5월 3주	전주대비	5월 3주	전주대비	5월 3주	전주대비	5월 3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18,403	▼-2,577	18,963	▼-2,000	14,779	▼ -607	15,176	▼ -425
	파나막스(5TC)	12,720	▼-1,823	14,278	▼-1,401	13,142	▼ -480	13,142	▼ -480
	수프라막스(10TC)	12,372	▼-1,141	13,254	▼-1,168	12,005	▼ -366	11,902	▼ -426
	핸디(7TC)	11,615	▼ -770	12,520	▼ -750	11,507	▼ -556	11,453	▼ -538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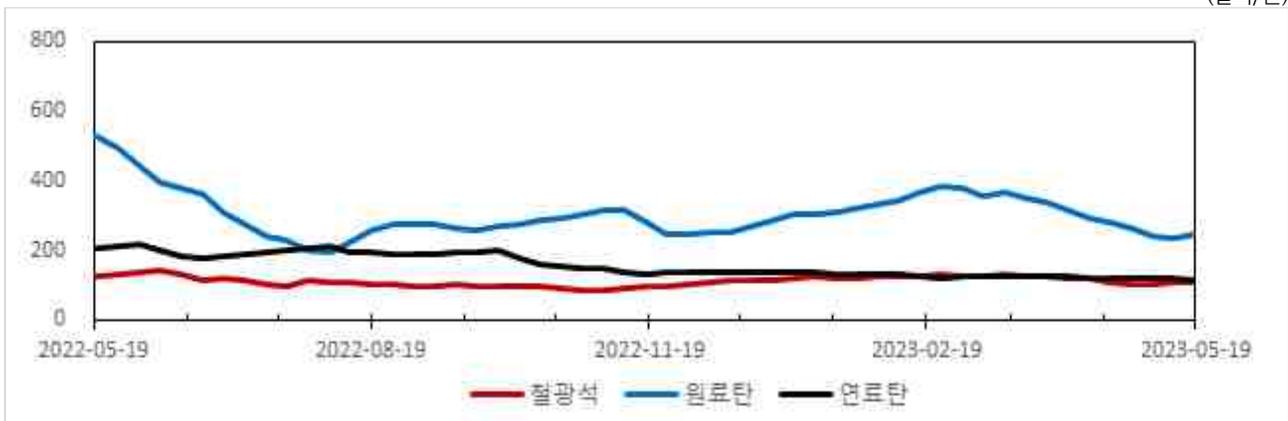
구분	2023년		전주 대비 차이			2022년			
	5월 3주	5월 2주				5월 3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08.5	106.0	▲ 2.6	2.4	%	129.2	120.3	82.4	159.8
원료탄	244.5	233.6	▲ 10.9	4.7	%	512.9	365.0	196.1	670.1
연료탄	115.6	120.7	▼ -5.0	-4.2	%	204.2	179.1	107.5	288.2
대두	495.5	531.7	▼ -36.2	-6.8	%	603.2	569.4	503.5	638.0
옥수수	224.0	252.7	▼ -28.7	-11.4	%	313.2	273.1	231.6	319.9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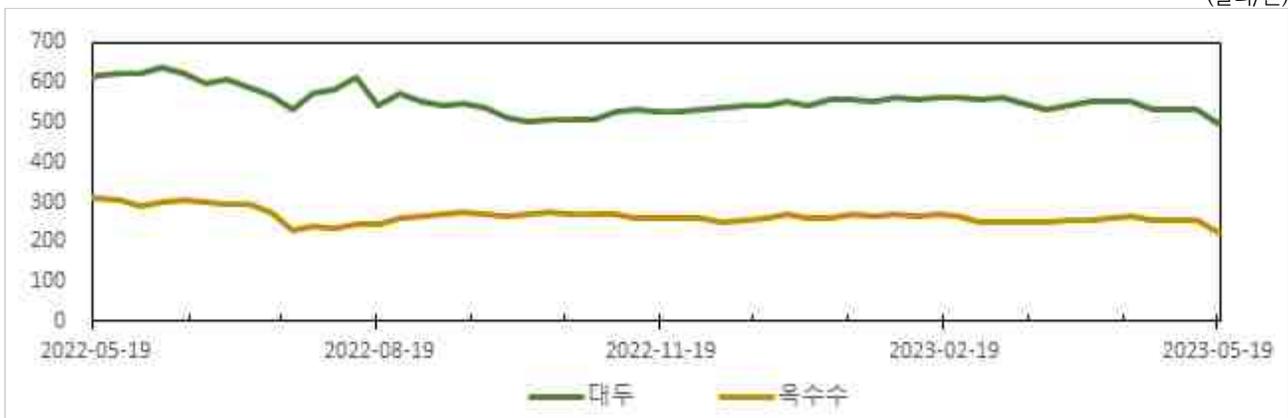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1 케이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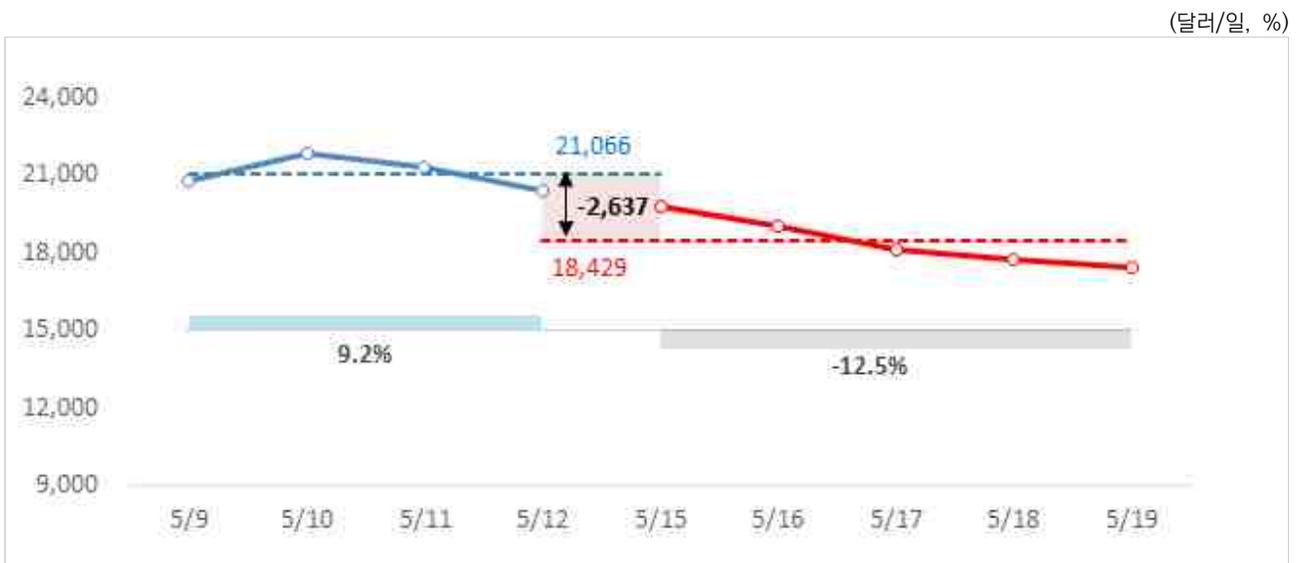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5월 2주) 대비 12.5% 하락한 18,429달러/일을 기록함

- 중국의 철재 원재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치에 못 미침

(동향) 중국 철광석 항만 재고량 증가 vs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 동결

- 마이스틸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 중국 247개의 제철소 고로 가동률(5월 12일~18일)은 89.12%로 전주 대비 소폭(0.09%p) 상승했으며, 주요 45개 항만의 철광석 재고량은 전주 대비 1.5% 증가한 1억 2,790만 톤을 기록함
-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동결하여,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함. 동시에 인민은행은 대규모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힘. 이러한 조치가 향후 중국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5월 3주	5월 2주	전주대비차이	
BCI	2,222	2,540	▼ -318	-12.5%
스팟운임(5TC)	18,429	21,066	▼ -2,637	-12.5%
용선료	6개월	21,500	▼ -2,500	-10.4%
	1년	17,250	▼ -1,000	-5.5%
	5년	16,250	▼ -250	-1.5%
FFA	6월물	18,403	▼ -2,577	-12.3%
	3분기물	18,963	▼ -2,000	-9.5%
	23년	14,779	▼ -607	-3.9%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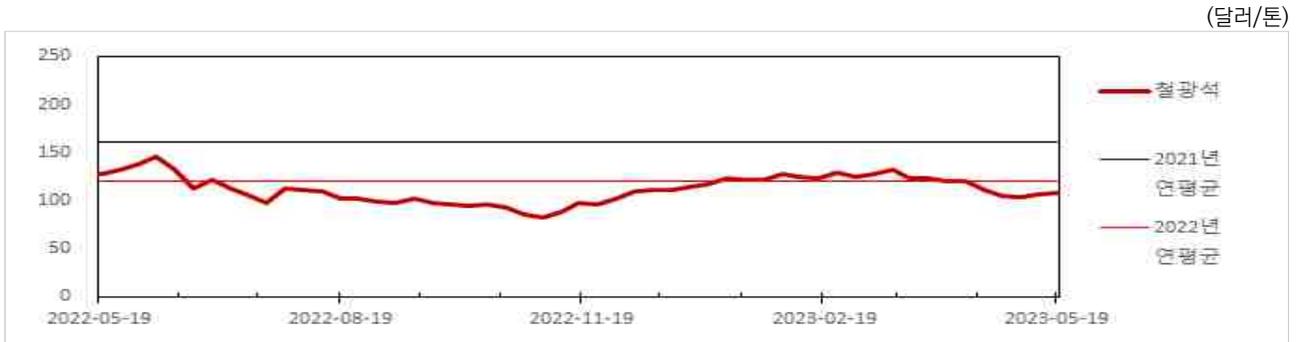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2.4% 상승한 108.5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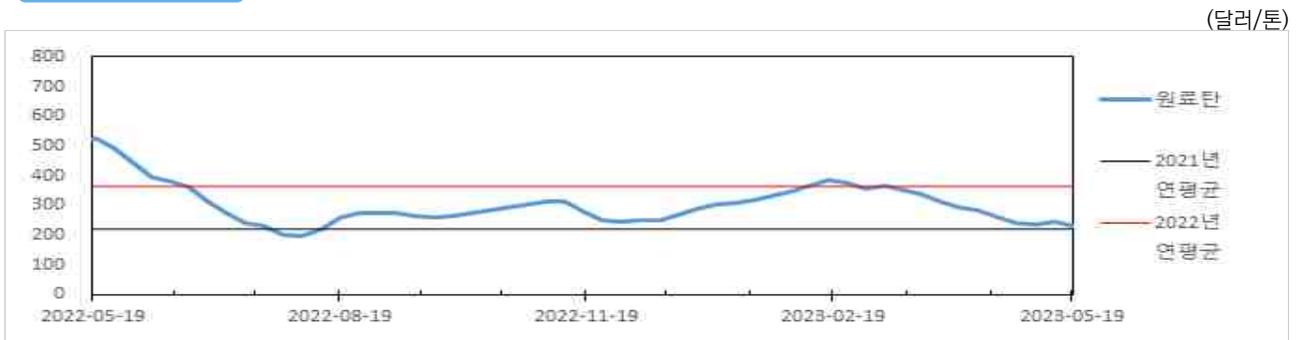
구분	철광석 가격	전주대비차이		
4월 4주	105.1	▼ -5.3	-4.8	%
5월 1주	103.6	▼ -1.5	-1.4	%
5월 2주	106.0	▲ 2.3	2.3	%
5월 3주	108.5	▲ 2.6	2.4	%

(달러/톤)

자료: Clarkson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4.7% 상승한 244.5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구분	원료탄 가격	전주대비차이		
4월 4주	262.1	▼ -20.0	-7.1	%
5월 1주	242.7	▼ -19.4	-7.4	%
5월 2주	233.6	▼ -9.1	-3.8	%
5월 3주	244.5	▲ 10.9	4.7	%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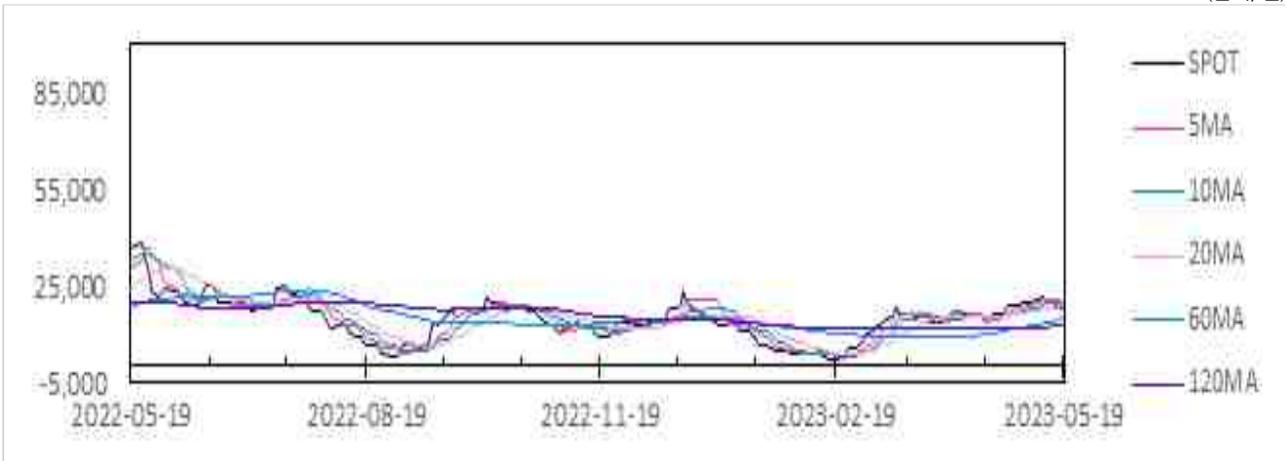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파나마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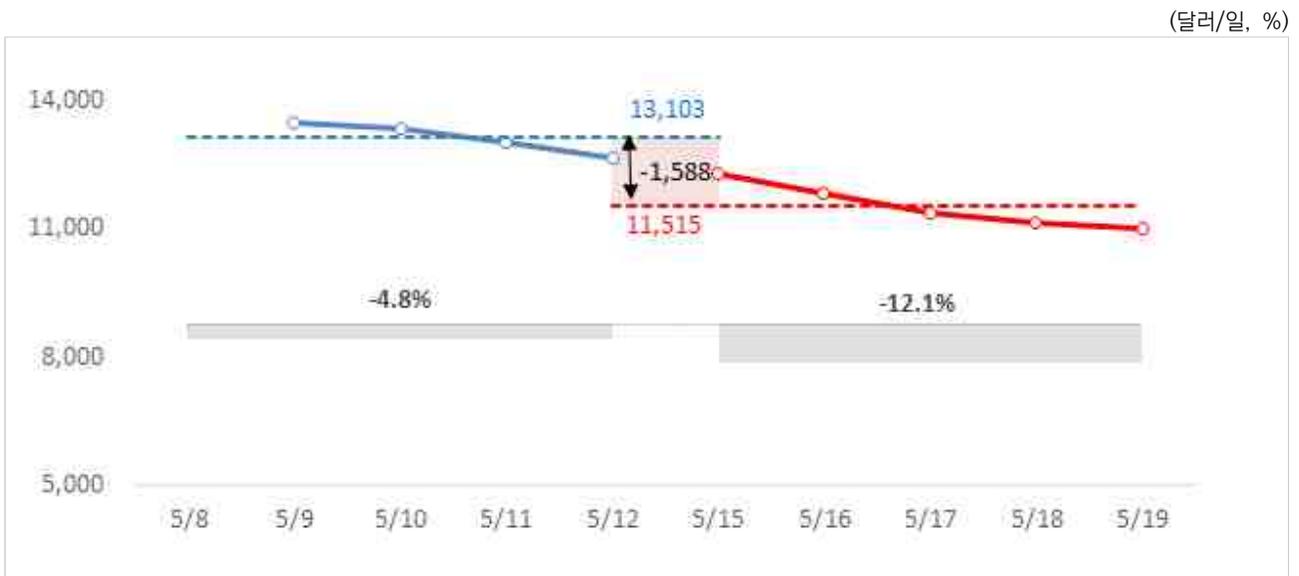
(운임) 전주 대비 12.1% 하락한 11,515달러/일 기록

- 해상물동량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선박수가 증가하며 운임이 하락함

(동향)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60일 연장 합의

- 지난 17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가 2개월 더 연장되어 오는 7월 18일까지 유효함. 이로써 협정은 60일 기한으로 오는 18일 종료될 예정임. 이 협정은 2022년 7월에 체결되어, 같은 해 11월과 2023년 3월에 두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마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5월 3주	5월 2주	전주대비차이				
BPI	1,279	1,456	▼	-176	-12.1	%	
스팟운임(5TC)	11,515	13,103	▼	-1,588	-12.1	%	
용선료	6개월	16,825	17,150	▼	-325	-1.9	%
	1년	16,000	16,075	▼	-75	-0.5	%
	5년	13,350	13,375	▼	-25	-0.2	%
FFA	6월물	12,720	14,543	▼	-1,823	-12.5	%
	3분기물	14,278	15,679	▼	-1,401	-8.9	%
	23년	13,142	13,622	▼	-480	-3.5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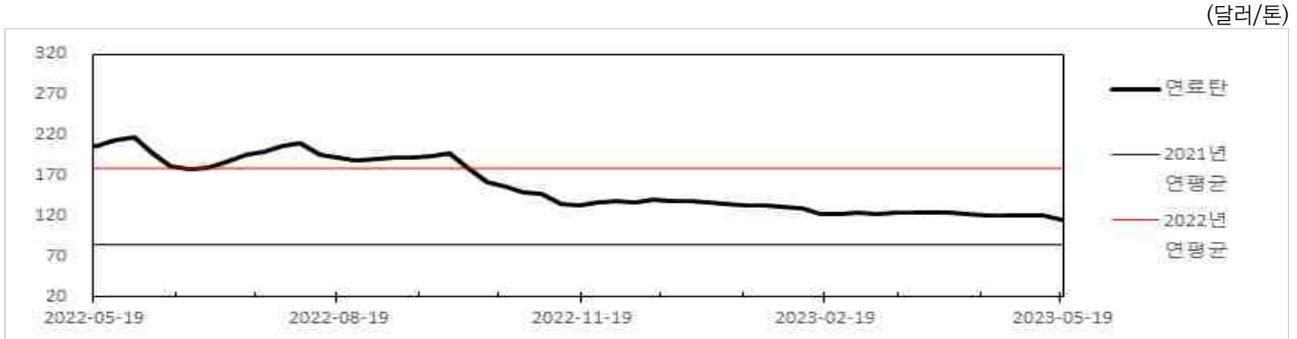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4.2% 하락한 115.6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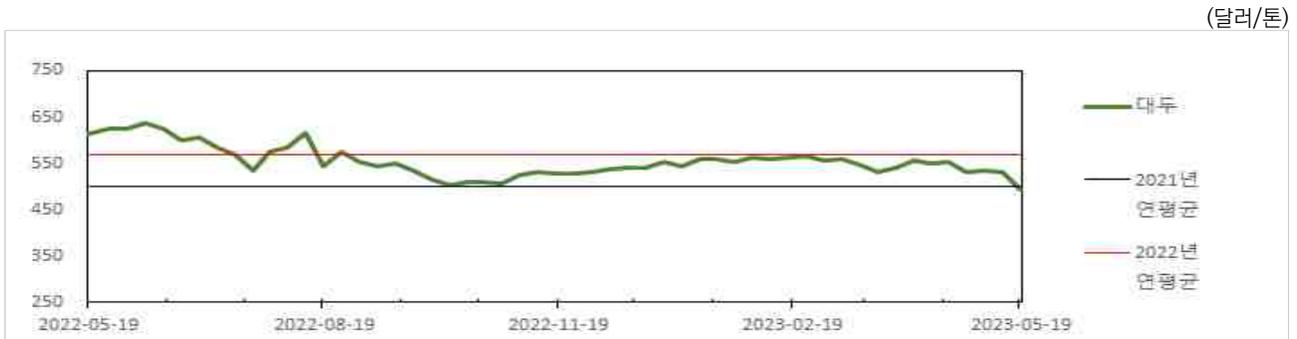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4월 4주	120.8	▲ 0.7	0.5	%
5월 1주	121.0	▲ 0.2	0.1	%
5월 2주	120.7	▼ -0.3	-0.3	%
5월 3주	115.6	▼ -5.0	-4.2	%

(달러/톤)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6.8% 하락한 495.5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4월 4주	530.4	▼ -22.5	-4.1	%
5월 1주	533.5	▲ 3.1	0.6	%
5월 2주	531.7	▼ -1.8	-0.3	%
5월 3주	495.5	▼ -36.2	-6.8	%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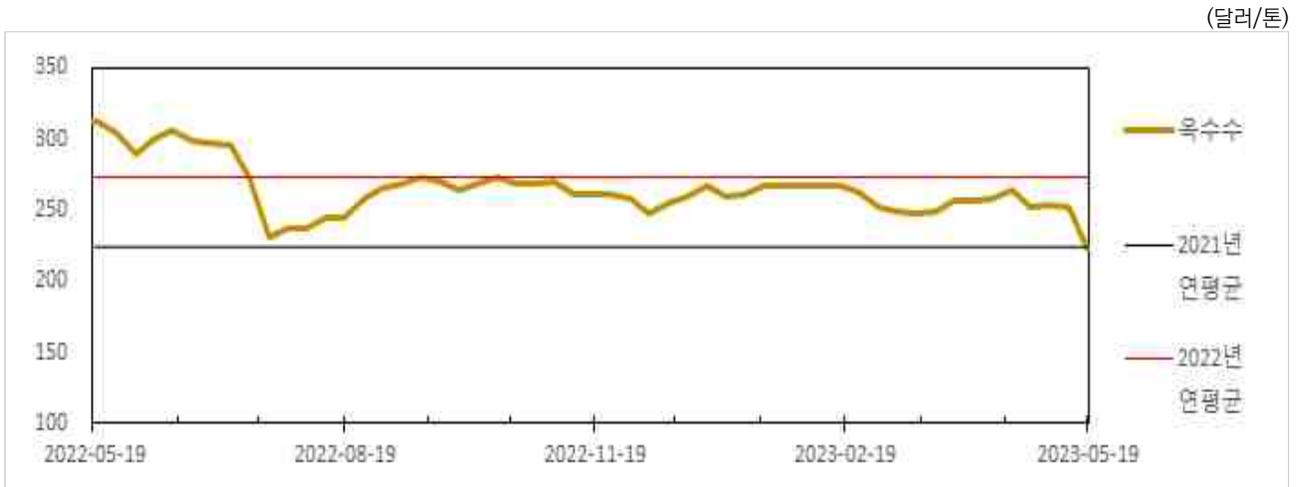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11.4% 하락한 224.0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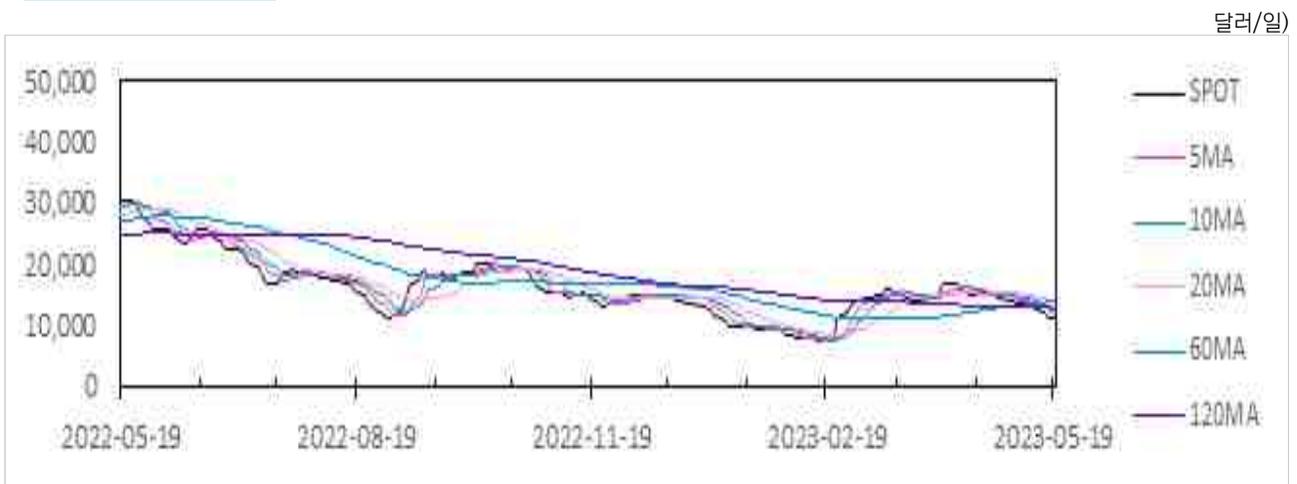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4월 4주	252.1	▼ -11.9	-4.5 %
5월 1주	253.7	▲ 1.6	0.6 %
5월 2주	252.7	▼ -1.0	-0.4 %
5월 3주	224.0	▼ -28.7	-11.4 %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수프라막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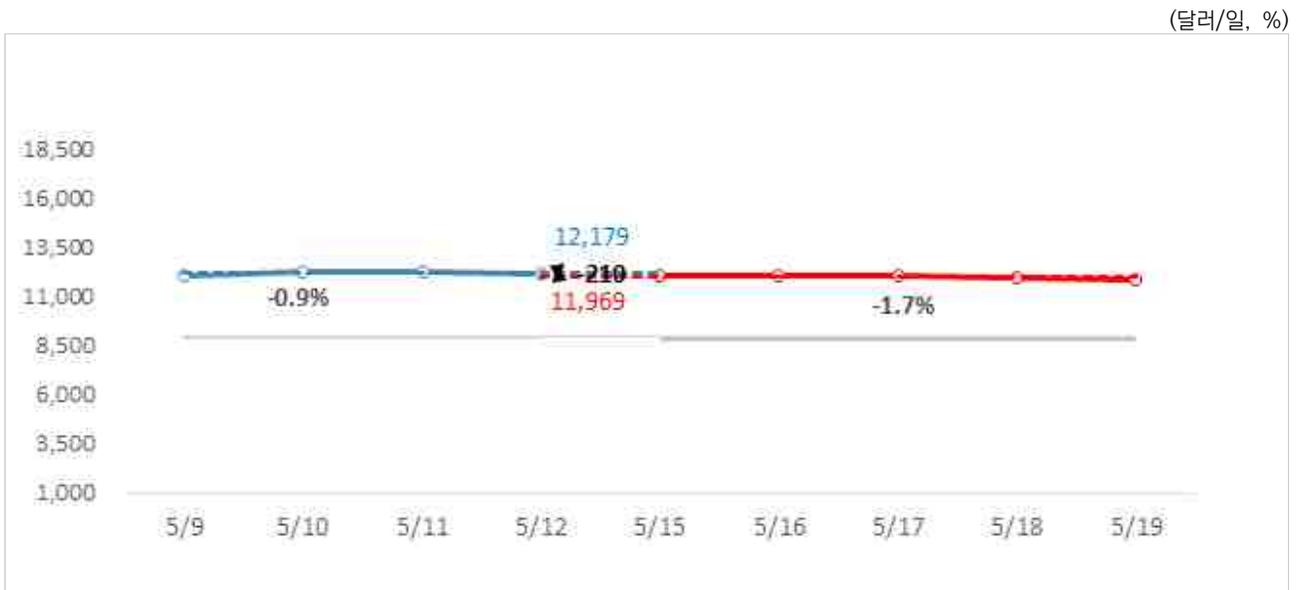
(운임) 전주 대비 1.7% 하락한 11,969달러/일 기록

○ 시장이 약보합세를 보임

(동향) 인도 문순 시즌 앞두고도 석탄 수요 증가에 대한 낙관론은 희박

○ 인도는 문순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4월 말과 5월 초에 수입으로 인도의 석탄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석탄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5월 3주	5월 2주	전주대비차이	
BSI	1,088	1,107	▼ -19	-1.7 %
스팟운임(10TC)	11,969	12,179	▼ -210	-1.7 %
용선료	6개월	14,375	▼ -375	-2.5 %
	1년	13,688	▼ -63	-0.5 %
	5년	12,500	-	-
FFA	6월물	12,372	▼ -1,141	-8.4 %
	3분기물	13,254	▼ -1,168	-8.1 %
	23년	12,005	▼ -366	-3.0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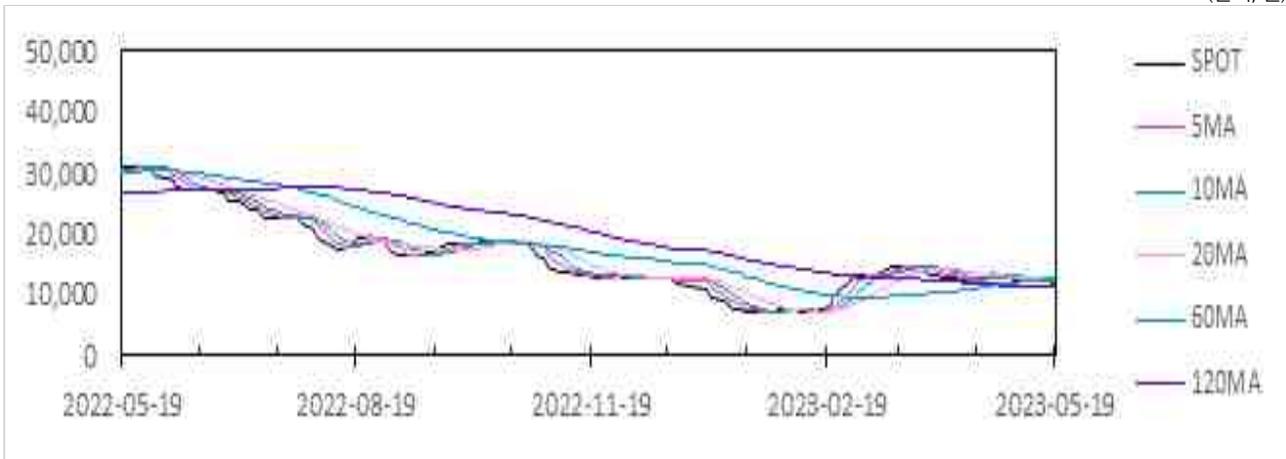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11p 하락한 972.4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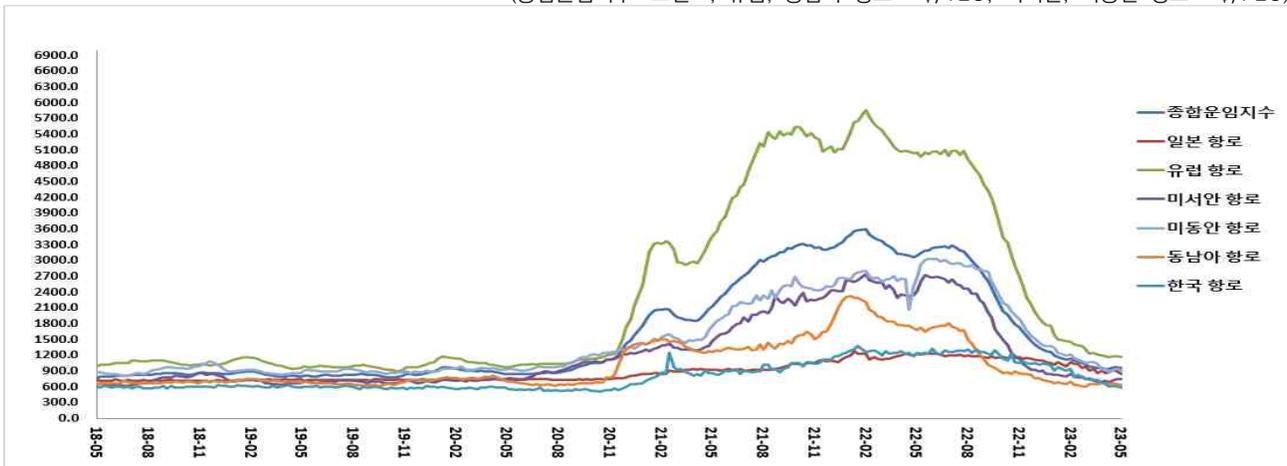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1p 하락한 972.4p를 기록하며 하락 추세가 이어짐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글로벌 원양 선사들의 한국발 선박이 추가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여 인프라 아시아 항로의 물량 경쟁 과열로 인한 운임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 여전히 컨테이너 시장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일부 포워더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 대신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물량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운임 하락 가능성이 높음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5월 3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종합운임지수	SCFI	972	-11.0	907	1,061	979	1,107	5,110	3,410
운임	유럽항로	869	-1	863	1,050	912	1,047	7,797	4,846
	미서안항로	1628	4	1,148	1,668	1,334	1,418	8,117	5,656
	미동안항로	1329	-56	2,010	2,845	2,429	3,096	11,833	8,514
	한국항로	140	-4	140	238	201	225	456	321
	일본항로	329	0	317	927	365	281	362	320
	동남아항로	174	1	150	199	176	189	1,537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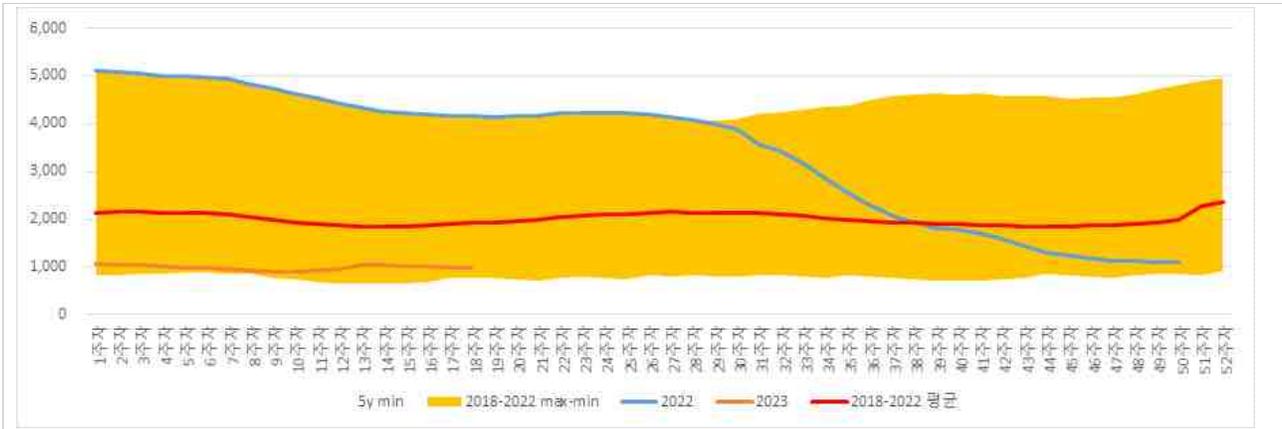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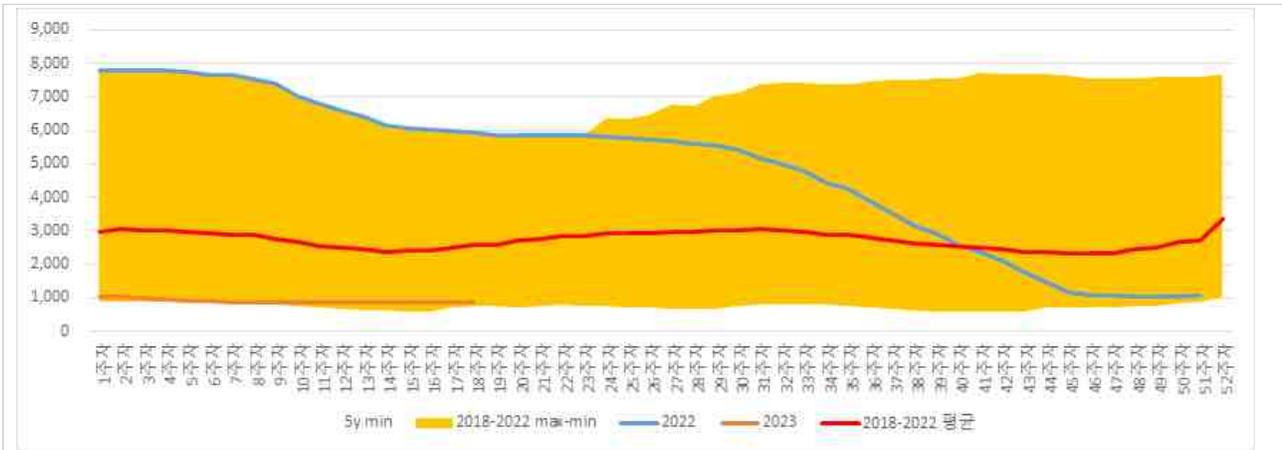
2 운임전망

| 5월 4주('23.5.22~'23.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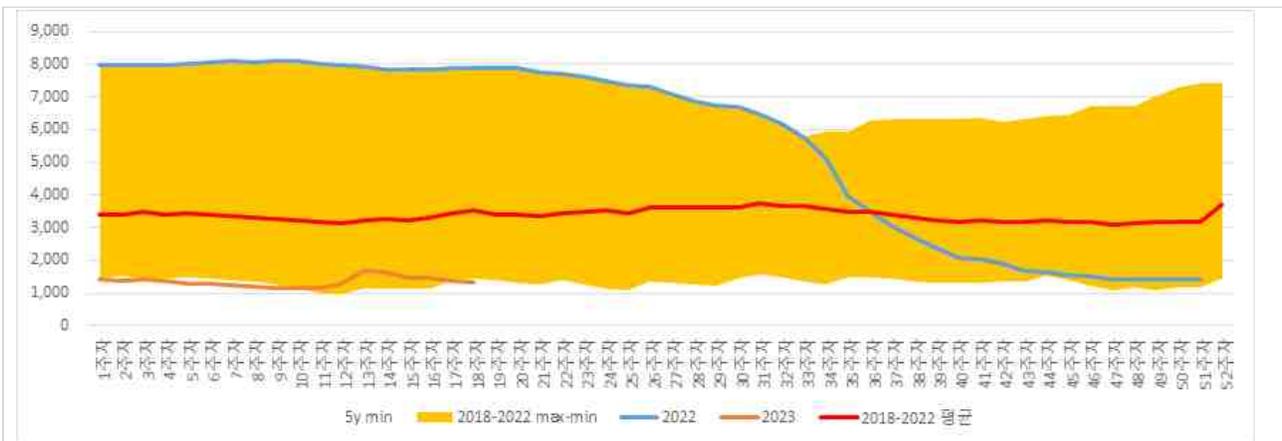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보합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 대비 15.1p 상승한 47.5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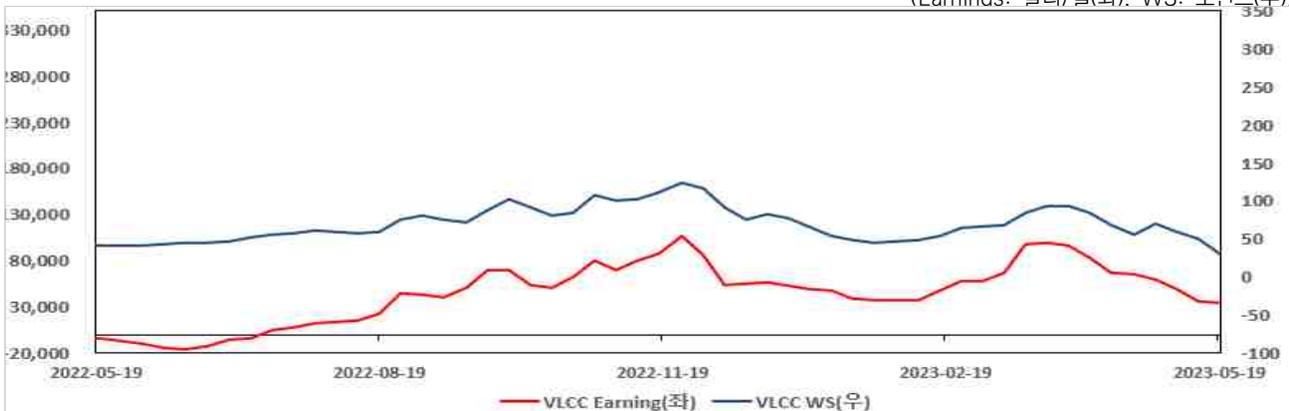
구분	5월 3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47.5	▲	15.1	46.6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4.0	▲	2.0	6.3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42.5	▲	7.5	17.7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47.0	▲	5.5	11.7 %

(동향) 유조선 시장 소폭 상승, 미국의 전략비축유 보충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기대감 유입

- 전주 대폭 하락 추세를 보이던 유조선 시장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실정으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IEA는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의 일부 산유국 공급 차질, 추가 감산 시행 등으로 인해 OPEC+가 연말까지 약 85만 b/d 수준으로 가파르게 공급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함.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대거 방출했던 미국이 이르면 내달부터 다시 SPR 300만 배럴 가량을 보충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유조선 시장의 단기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유조선 시장(항로)	구분	5월 3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동-중국 항로(TD3C)	운임지수	47.5	15	30	94	63	32	123	63
	평균 수익	25,409	15,611	14,043	97,526	45,427	24,517	101,230	16,685
VLCC	1년 용선료	37,500	500	37,000	50,000	41,566	15,000	47,500	25,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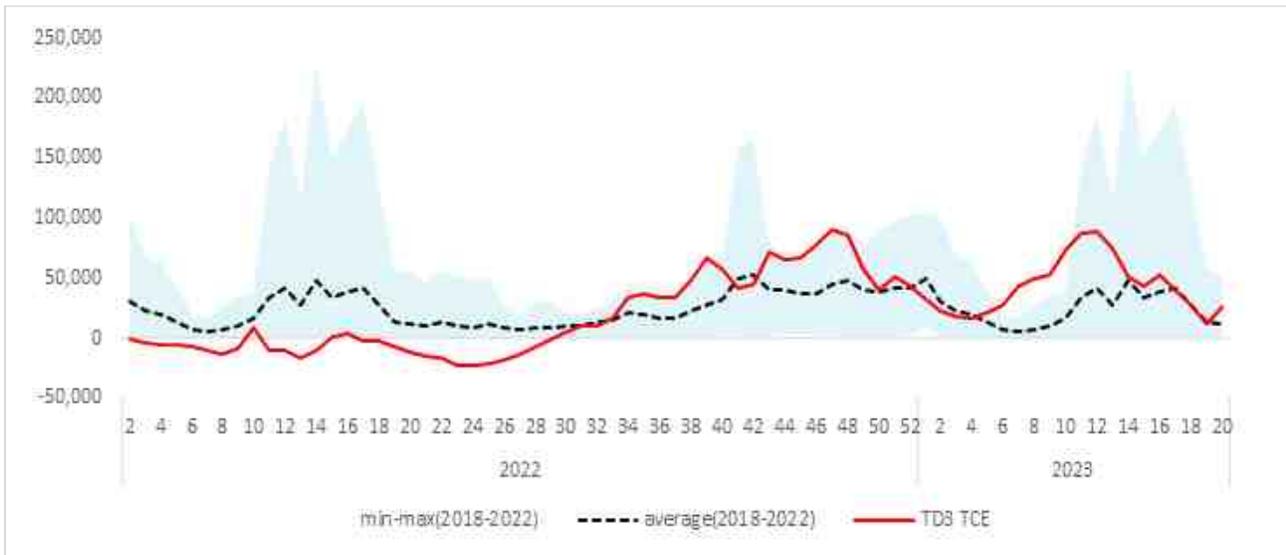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1 유조선-기술분석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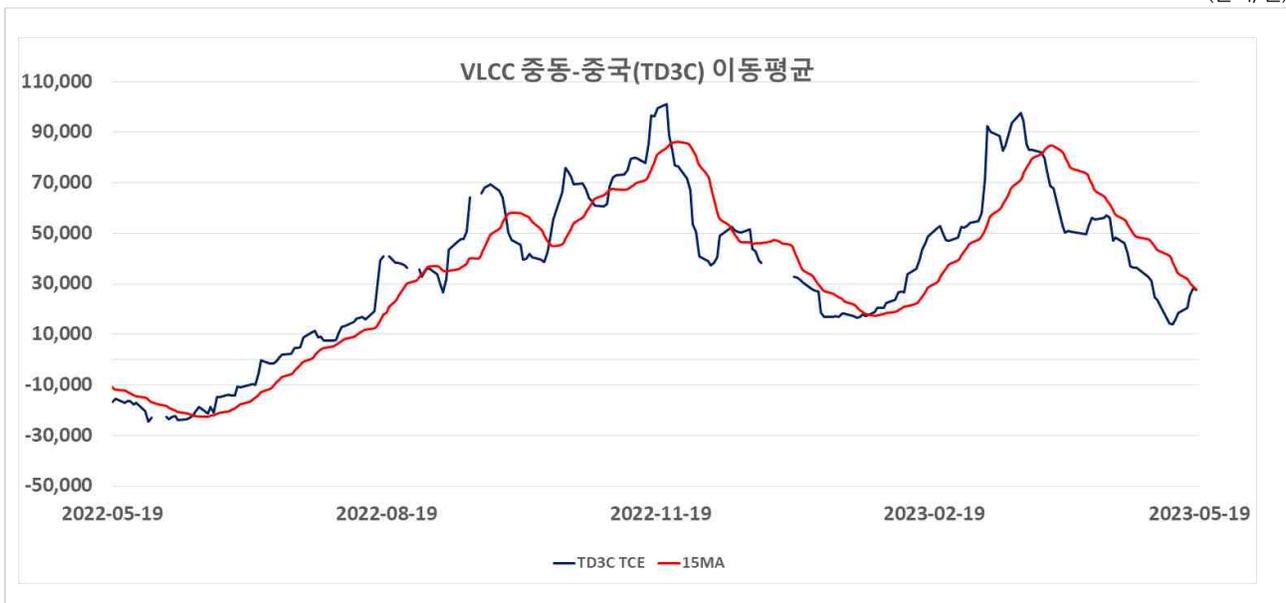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전주 대비 대폭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 대비 43.6p 상승한 228.1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5월 3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228.1	▲	43.6	23.7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20.0	▼	30.0	20.0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160.0	▼	15.0	8.6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195.0	▼	25.0	11.4 %

(동향) 석유제품 소비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 지속, 석유제품 물동량 둔화로 인한 시황 약세 흐름 지속

- 중국 리오프닝의 긍정적 효과와 인도 내수 활성화 등 아시아권의 경제 성장 추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금융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석유제품 소비가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음. 중국의 석유제품 수축 쿼터 축소와 두료 정유사 정기보수로 5월 이후 석유제품 생산 및 공급 축소와 함께 정제마진 급락으로 인한 나프타 물동량 둔화 현상까지 지속되며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OPEC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비즈니스 및 관광 증가추세가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와 더불어 항공유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며, 건설 및 석화산업 등에서의 석유제품 소비 증가, 인도의 경제 활성화와 항공 수요 회복으로 인해 석유제품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이 외에도 중동, 중남미의 계절성 연료유 수요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올해 세계 석유 수요를 1억 190만 b/d로, 전년 대비 약 233만 b/d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5월 3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228.1	43.6	174	266	209	120	447	278
	평균 수익	39,124	7,563	21,713	50,916	34,712	6,216	72,180	38,274
MR	1년 용선료	26,500	-1500	26,000	31,250	28,684	12,357	30,250	20,570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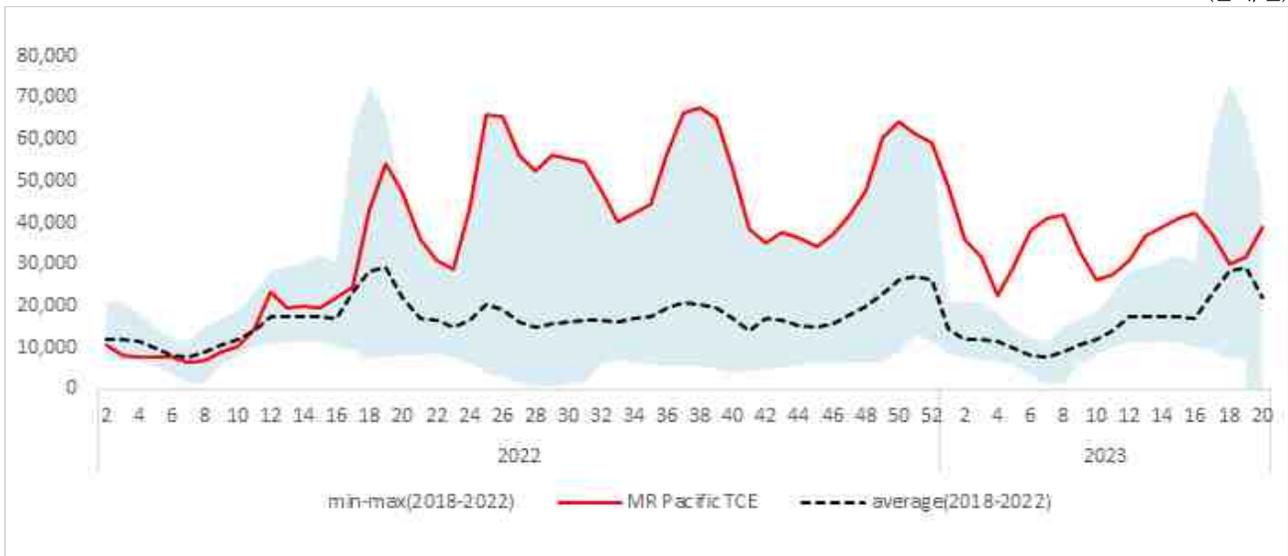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I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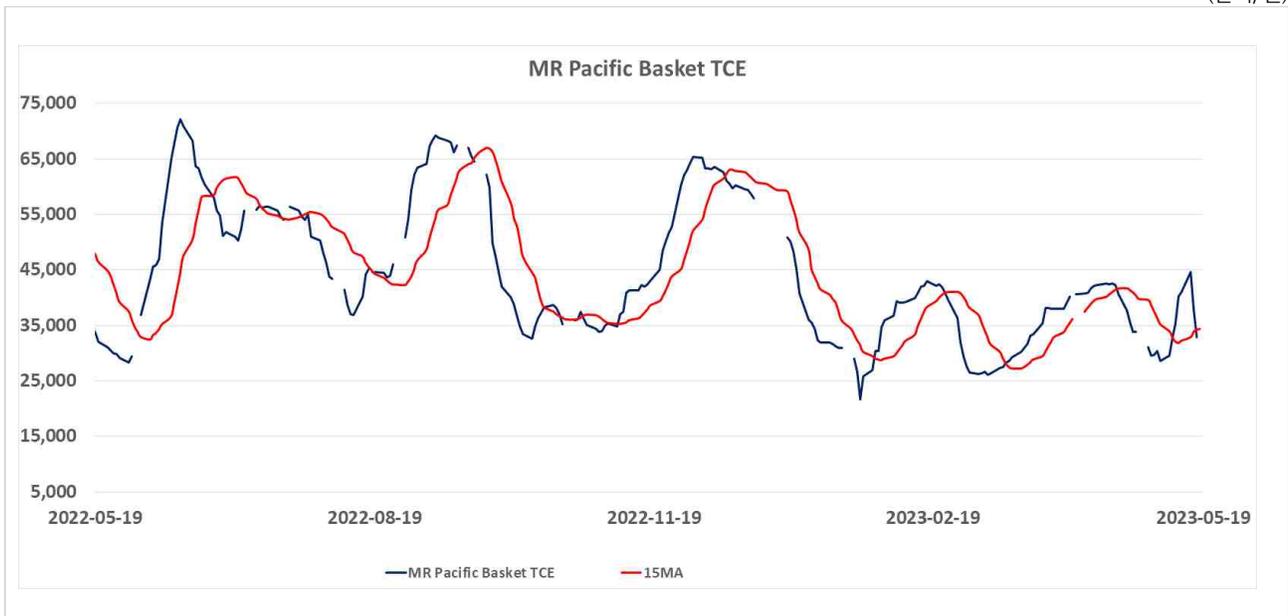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I 수익 추세선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다 상승 반등 후 재하락 추세를 보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전주와 같이 27.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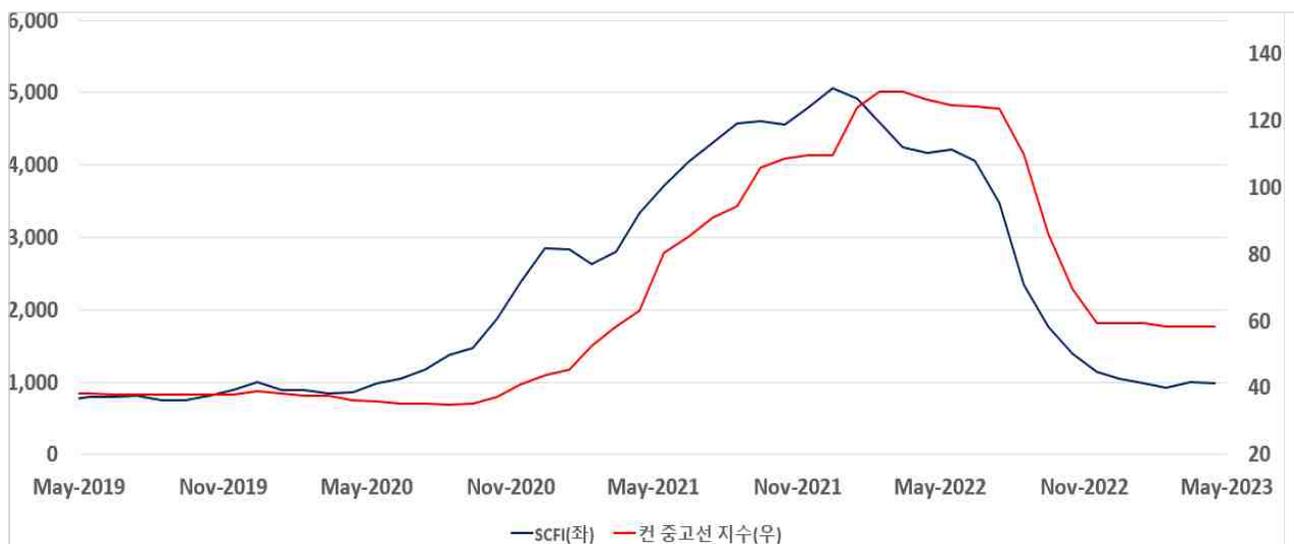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10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58.4로 전월과 동일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3.05.01~'23.05.19)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53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Bulk Electra	2015	66,604	DWT	2023-05-12	27.00	region	Doun Kisen
Bulk	FPMC B 103	2011	104,988	DWT	2023-05-12	24.00	high	Formosa Plastics Co
Bulk	Simge Aksoy	2006	53,393	DWT	2023-05-12	11.00		Akmar Shpg & Trdg
Bulk	Ultra Panache	2011	78,450	DWT	2023-05-12	20.00	excess	Ultrabulk Shipping
TankChem	Jenny I	2003	40,128	DWT	2023-05-10	17.00		Ancora Investment
Container	Northern Magnum	2003	6,750	TEU	2023-05-10		undisclosed	Northern Shipping
TankChem	Symphony	2004	46,248	DWT	2023-05-10	17.55		Active Marine Pvt.
TankChem	Adamas I	2009	50,122	DWT	2023-05-09	24.50	region	Zeus Lines Mngt
Container	Ingrid	2008	698	TEU	2023-05-09	5.80		OY Langh Ship AB
TankChem	MTM Hudson	2004	51,318	DWT	2023-05-09	18.00	excess	MTM
Bulk	Hai Sheng 967	2020	10,000	DWT	2023-05-07	1.81	at auction	Zhuohuihang Shpg
Bulk	Cape Eternity	2011	207,855	DWT	2023-05-06		undisclosed	Doun Kisen
Bulk	Thalassic	2009	81,426	DWT	2023-05-06	20.00	high	Unisea Shipping
Bulk	Mount Athos	2014	63,155	DWT	2023-05-05	25.00	region	Union Commercial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Tanker	PS Pisa	2010	108,835	DWT	2023-05-05	36.50		Premuda SpA
Bulk	Vokaria	2020	63,614	DWT	2023-05-04	30.00	low/mid	Union Commercial
TankChem	GT Star	2012	19,956	DWT	2023-05-03	21.00		Nisshin Shipping
Bulk	Ithaca Stockholm	2010	35,052	DWT	2023-05-03	11.00		Ithaca Handy
Gas C'rier	LNG Alliance	2007	154,472	cu.m.	2023-05-03	68.00	TCB	TotalEnergies
Bulk	Ariadne	2010	57,038	DWT	2023-05-02	13.30		Livanos N.G.
TankChem	Celsius Malaga	2008	20,832	DWT	2023-05-02	18.50	region/TC incl.	Celsius Shipping
Container	Stonewell Brilliance	1994	1,684	TEU	2023-05-02	3.45		Flex Box Shipping
Container	Northern Promotion*	2010	4,406	TEU	2023-05-02		undisclosed	Northern Shipping
Container	Northern Priority*	2009	4,406	TEU	2023-05-02			Northern Shipping
Gas C'rier	Eco Texiana*	2020	5,030	cu.m.	2023-05-02	20.00		StealthGas
Gas C'rier	Eco Nemesis*	2015	5,000	cu.m.	2023-05-02	16.90		StealthGas
Gas C'rier	Eco Czar*	2015	5,000	cu.m.	2023-05-02	16.90		StealthGas
Gas C'rier	Eco Enigma*	2015	5,025	cu.m.	2023-05-02	16.90		StealthGas
Bulk	Mandarin Dalian	2010	56,605	DWT	2023-05-01	13.00	high	Dasin Shipping



6. 주요 해운지표

(2023.05.19.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5월 평균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18	18	18
유조선(5년) VLCC	100	0	100	100	100	100	70	95	8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21	0	21	20	21	20	21	56	4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4	0	34	33	34	33	34	37	36
유조선 VLCC	125	1	124	120	124	121	114	120	118
컨테이너선 Sub-Panamax	43	0	43	42	42	42	40	43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37	-5	434	367	484	416	354	689	512
	Singapore	452	-3	452	378	505	436	374	774	529
	Korea	483	-5	482	439	526	480	418	785	581
	Hong Kong	464	-10	471	421	507	466	414	804	554
VLSFO	Rotterdam	530	-2	525	514	600	563	526	980	729
	Singapore	569	-3	569	560	695	611	599	1,138	804
	Hong kong	584	-8	589	574	690	626	606	1,189	818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134	0	106	-	162	138	0	195	143
연료탄 (\$/Tonne)	국제價	127	-1	103	-	133	118	-	141	124
	중국産	143	-1	144	-	149	137	-	193	142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	-	-	758	146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230	-16	199	-	371	123	-	530	119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307	-83	1393	1,390	1,544	1,488	1,344	1,769	1,538
	밀(국제)	605	-30	635	609	792	708	729	1,425	905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